

5. 심판의 결과 (3:18-21)

- ¹⁸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 ¹⁹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 ²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 ²¹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앞에서 여호와와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세상은 심판 받지만 여호와와의 백성은 산성에서安然히 거한다고 하였다.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심판 이후의 평화에 대해서 말한다. 비 온 후에 하늘이 맑게 빛나는 것처럼 여호와와의 날의 심판이 끝난 후에 온 세상에 낙원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1) 포도주와 젖과 시내 (3:18a)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신 결과로 나타날 모습을 포도주, 젖, 시내의 풍부함으로 다양하게 묘사하였다.

첫째는 단 포도주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묘사하였다. 요엘서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전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3:13에서는 포도주가 심판의 증거가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풍요와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3장의 단 포도주는 또한 1장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된다. 1장에서는 술취한 자들에게 여호와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단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술에서 깨어나라고 경고하며 포도주가 없어서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하였다. 여호와와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는 포도원을 소작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마르고 오히려 애곡함만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자 산들에 단 포도주가 흘러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포도주는 농부가 힘써 경작하여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 결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도주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신 종말론적인 잔치로 연결된다(사 25:6-8).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에 나타난 또 다른 결과는 산들이 젖을 흘린다는 것이다. 전에는 메뚜기 때 때문에 풀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작은 산에도 풀이 넘쳐나서 양들은 평화롭게 살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풍족한 것으로 흡족할 것이다. 필요한 것보

다 넘침으로 산이 젖을 흘릴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포도주와 젖에 대한 이미지는 좀더 근원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즉 포도주와 젖이 넘쳐 흐르게 된 것은 물이 넘쳐서 포도나무와 풀이 잘 자랐기 때문이므로 유다의 시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들짐승도 하늘을 쳐다보고 농부의 기쁨도 다 말라버렸지만 이제 그 언약의 저주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넘쳐난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도 주실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이전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는데(2:3) 이제는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렀던 것처럼 이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다.

2) 여호와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샘 (3:18b)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걷히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근원은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샘이다. 예루살렘은 산성이고 거기에는 강이 없는데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싯딤 골짜기, 곧 아카시아 골짜기(와디)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아카시아는 황무지에서 자라는 나무이고 ‘와디’는 우기에만 강이 흐르는 황무한 지역이지만 아카시아 골짜기(와디)에 물이 계속 흘러서 이 지역이 풍요로운 곳으로 바뀔 것이다.

여호와와의 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한 내용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날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와의 전에서부터 강이 흐를 것이라고 하였다(겔 47:1-12). 성전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동편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고,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 바다에도 성전에서 나온 물 때문에 큰 바다(지중해)처럼 많은 고기가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강의 좌우에 있는 각종 나무에는 실과가 맺힐 것이라고 하였다. 여호와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강과 바다와 나무의 예를 들어서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스가라서 14:8-10에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온 땅은 요단 계곡의 아라바 지역같이 낮아지지만(14:10)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물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14:8). 스가라 선지자는 또한 시온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솟아나고(참조. 사 2:2)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홀로 하나이신 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거기에서부터 우기인 겨울뿐 아니라 건기인 여름에도 쉬임 없이 물이 온 세상에 흘러내릴 것이다.

에스겔서와 스가라서에서 나오는 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생명을 주는 물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흐르는 이 물은 생명을 주는 성신을 상징한다(참조. 요 7:39). 성신께서 모든 육체에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성을 극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여호와와의 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모습은 에덴 동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참조. 2:3).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강이 나와 넷으로 나뉘어 흘러서 세상을 채

왔다. 일반적으로 강은 여러 지류가 하나로 합해지지만 에덴에 흐르던 강은 한 강에서부터 네 강으로 나뉘었다(시 46:4).

요엘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에덴의 복된 상태를 회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성을 지향한다. 창조와 종말의 중간 시대에 있는 요엘 선지자는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미래를 묘사하였다. 마치 출애굽 시의 재앙이나 시내 산의 신현(神現)을 들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에덴의 강물을 들어서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역사를 조망하면서 예언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그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창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3)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 (3:19)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과 함께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 씀하면서 사망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요엘 선지자는 시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생명과 사망이라는 뚜렷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미지들을 사용한다(참조, 겔 47:11).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언급 다음에 기록된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예언의 다른 부분, 즉 사망에 대한 말씀을 본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유다에게 강포를 행한 애굽과 에돔은 여전히 황무한 들로 남고 하나님의 원수 갇음을 기다리게 하셨다.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다른 나라에게 임한 것이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리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갇아주실 것이다.

3:4에서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을 밝혔다.

4)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원성 (3:20-21)

이스라엘을 반대하였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지만 그러한 배경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원성이 선언되었다. 땅의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요롭고 또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하게 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시온 산이 높아지고 말씀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하였다(사 2:1-4).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사 11:9) 이리와 어린양, 표범과 어린 암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 거하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평화로운 낙원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하였다(사 2:3).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여호와와 신으로 표현하였지만 이사야는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한다. 성신과 말씀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성신과 말씀은 여호와와 성전에서부터 함께 흘러나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오순절의 성신 강림에 대한 요엘서의 예언은 2:28-32뿐 아니라 여호와와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3:18이 성취된 일이다. 2:28-32의 말씀대로 성신을 부어주시면 그 결과 여호와와 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도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5) 여호와와 날의 이중성: “전에는” 과 “이제는”

‘전에는’ 피흘림을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갚아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것이 요엘서의 결론이다. 전에 피흘림을 갚아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만해진 심판의 도구를 대적하시고, 판결하시고 싸우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와 집에서부터 시작되다가 이제 만국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만국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피흘림을 갚아주는 일이 완성된다. 여호와와 날은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다.

요엘서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로 끝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시온을 침략할 수 없다.

6. 요엘서의 예언과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교회

1) 예수님과 생수의 강 (요 7:37-38)

요엘 선지자는 한 강이 넷으로 나뉘어 흘러서 동산을 축축이 적시는 예덴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배에서부터, 즉 그의 깊은 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외치셨다(요 7:37-38). 결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에서부터 근원적인 만족을 주면서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조금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나와서 넉넉하고 풍부하고 흡족하게 만족함을 주신다(겔 47:5).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다섯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수가 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요 4:14).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요

2:21).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근원적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생명과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성신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9)라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또한 이 성신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신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이야기하여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실 것을 가르쳤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는데(계 21:22) 성전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의 생명수가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계 22:1-2). 이 말씀은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이며(계 21:9),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의 완성을 소망하는 교회이다.²⁵⁾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본다. 이러한 회복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2)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말씀과 성신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 이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교회 밖은 어두운 것이다.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한다. 성신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지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사망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쳤는데 두 가지 사실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눅 24:44-48). 첫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눅 24:46), 둘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쳤다(눅 24:47). 보통은 첫째의 사실에서만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두 번째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의 강조점은 두 번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

25) 사도 요한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계 21:24-25)고 가르치는데, 원문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성문이 닫히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대는 완성된 이후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이다. 이러한 새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라”(눅 24:49)고 말씀하셨다.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흘러나갈 것인데, 성신의 능력으로, 즉 물로 표현된 성신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신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을 받은 다음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행 1:4-5). 사도는 오순절에 성신을 받고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였다. 물로 표현된 성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와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구약의 말씀이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제 오순절에 임한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르는 곳마다 소성케 하며 치료를 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 개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고, 가정과 사회가 새롭게 된다.

성신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받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따른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다(고후 2:14-17).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업위를 본다.

3) 여호와와 날과 주의 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고 구약의 여호와임을 계시하셨다(요 8:58 등). 신약에서는 부활하고 높아지신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여 불렀는데, 그 칭호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기 때문에(행 2:36. 참조. 빌 2:11) 그리스도는 여호와, 곧 주이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호와 곧 주이며 또한 성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성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여호와와 날을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 ‘그날’ 등으로 부른다(고전 1:7-8; 빌 1:6, 10; 살전 5:1-10; 살후 1:7-10).

여호와와 날이 주의 날로 바뀌었지만, 그날에 일어나는 일은 동일하다. 여호와와 날이 심판의 날인 것처럼,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주의 날’이다(계 1:10). 구약의 여호와와 날이 심판의 날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도 심판의 날이다.

또한 심판하시는 방식도 비슷하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든 백성을 모으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이다(마 25:32). 바다도 땅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4) 하나님의 경영: 심판과 구원 -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벧전 4:17)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와 날의 이중적인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

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칙은 신약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였던 것처럼²⁶⁾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벧전 4:17-18)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고, 그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벧전 4:19).

베드로전서 4:17의 심판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고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벧전 4:1). 아담의 범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 즉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러한 때에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다. 고난 자체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신자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을 먼저 시작하셨는데 대적이 교만함을 드러낼 때에 대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는 오늘날도 사실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요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등장하는데(특히 계 8-9장), 그러한 고난은 어린양이 책을 봉함한 인을 뺏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계 5:5; 6:1 이하). 따라서 신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양이 적극적으로 인을 뺏으므로써 발생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다(계 6:9-11).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데(계 19:1-3), 그 심판은 곧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서주가 된다. 심판에 대한 찬송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축하하는 노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계 19:6-8).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는 원리를 확신하게 된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약의 백성들은 따라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26) 여기에서 심판은 반드시 개인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엘 선지자 개인의 죄는 현저하지 않지만 요엘 선지자는 그 심판에 참여하여서 주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1:19-20).

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조그마한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조금하게 분을 내는 경향이 강하다(참조, 딤후 3:4).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약의 교회의 큰 원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벧전 2:19).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셨다가 교만해진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신원의 날을 바라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3:18-21 복습 문제

1. 1) 요엘서 3:1-17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 2) 요엘서 3:18-21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 3)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애굽과 에돔:
2. 1) 심판의 결과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풍요함과 기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세 단어를 짚어 보십시오. (3:18)
- 2) 요엘서에서 포도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십시오. (1:5, 10, 13; 2:19; 3:13)
- 3)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포도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 25:6-8)
- 4) 산이 절을 흔들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 5) 포도주와 절이 넘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 1) 포도주와 절과 물이 넘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8)
- 2) 싯딤 골짜기를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 3) 에스겔 47:1-12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강이 흐를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강이 흐름으로써 나타날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 4) 스가랴 14:8-10에서 예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5)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물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요 7:39)
- 6)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세상을 채우는 것은 무엇을 전제했습니까? (창조. 2:3)
- 7) 요엘 선지자가 에덴의 강물로서 표현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4. 1)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반대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3:19)
- 2) 에돔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 부분에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 3) 유다와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영원히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이사야 선지자는 높아진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가르칩니까? (사 2:3)
5. 1) 여호와의 집에서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갇아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여호와의 집에서 이제 갇아주시므로 발생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3) “전에는”과 “이제는”에서 배울 수 있는 여호와의 낯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6. 1) 예멘 동산을 전제로 하고 예언한 내용은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2) 초락절에 예수님은 어떠한 초청을 하셨습니까? (요 7:37-38)
 3) “그 배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4) 요엘서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을 예언하였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2:21; 계 21:22)
 5)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 7:39)
 6) 생수에 대한 예언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조. 계 21:24-25)
7. 1)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성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어느 부분입니까?
 3) 성신께서 교회를 통해 전파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4) 복음의 말씀의 두 가지 흔라는 무엇입니까?
8. 1) 여호와의 낯과 신약에서 어떤 말로 불립니까?
 2) 두 낯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9. 1) 구약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는 어떤 말로 요약하였습니까?
 2) 신약의 백성에게도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3) 베드로전서 4:17의 ‘십판’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4) 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벧전 4:1)
 5)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무엇과 함께 끝이 맺니까? (계 19:1-3)
 6) 요엘서에서 배울 수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고 문헌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 II.
 Allen, L. C. "Joel" *NBC*, IVP
 -----, *The Book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NICOT, Eerdmans, 1976.
 Dillard, R. "Joel" *Evangelical Commentary*.
 -----, *Joel*, in *The Minor Prophets. An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Baker Book House, 1992.
 Hubbard, D. A., *Joel and Amos*, TCOT, IVP, 1989.
 Robertson, O. Palmer, *Prophet of the Coming Day of the Lord*, Evangelical Press, 1995.
 『요엘』, 목회자료사 번역실, 1996.
 Wolff, Hans Walter, *Joel and Amos*, Hermeneia, Fortress Press, 1977.
 손석태, 『요엘서 강의』, ESP, 2001.